히틀러 연설에서의 에토스와 파토스에 관하여

김종영(목포대)

1. 들어가는 말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의 감정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1] 그는 당시 독일의 파국을 자신이 공연해야 하는 무대장치로 확인하였으며, 독일국민의 상처 입은 민족감정을 포함한 온갖 것들을 조합하여 대중이 수긍하는 방식으로 알기 쉽게 연결시켜나갔다. 그의 뛰어난 연설능력은 국가사회주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는 어떤 집회에서나 그 집회에 참석한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말하였다.[2] 그는 자신이

1) 히틀러의 도약과 초반의 성공은 어쩌면 모든 시대 사람들의 친숙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의 안정과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는 당시 독일인들의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논의의 중심에는 늘 히틀러의 전기를 둘러싼 많은 저술가들의 담론이 자리하게 되고, 여기에 동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첨가되면 논의는 더욱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 히틀러에 관한 논의는 많은 해석자들의 다양한 논의에서 다루어져왔다. 이를테면 히틀러를 심연에서 튀어 올라온 괴물의 형상으로 그려내며 이를 묵시적으로 정형화하려 한 신학적 색채를 띤 해석들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를 미화할 의도로 대자본가들이 배후에서 히틀러를 조종하고 부추겨서 결국은 파국이 초래하게 되었다는 시각도 있으며, 히틀러를 헤겔에서 니체에 이르는 독일철학의 파국이라든가 모더니즘의 위기에 등장한 파국적 인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회고의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는 논의는 상반된 입장으로 대별되고 있다. 이를테면 나치정권에 동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히틀러에 찬성하거나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였고, 나치정권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무기력하고 실패했던 사실을 변명하는 일로 일관하고 있다(Fest 1973참조).

2) 히틀러가 대중의 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동원한 표현들을 한데 모아 놓으면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었다. 겁먹은 시민 계급은 질서와 사회적 세력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혁명적인 분위기의 젊은 세대는 새롭고 낭만적인 사회의 구상을, 사기를 잃어버린 노동자 계층은 안전과 빵을, 십만 군대는 경력과 화려한 제복의 전망을 얻었다. 지식인들은 이성경시와 생의 우상화라는 유행적 정서에 대한 대담하고 생생한 답변을 얻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방을 향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정치적인 기본 음조를 잡아내는 능력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고발하면서 만들어 낸 사회적 혼돈상태를 이용하여 대중의 감정을 부추겼으며,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증오의 감정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치적 동력으로 바꾸어 나갔다.

히틀러는 초기의 연설에서부터 청중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경찰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연사가 연설할 때에는 고요할 정도로 조용하였으나,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청중들이 유난히 활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정도로 그의 연설은 수사적으로 매우 훌륭하였다고 전하고 있다.[3] 히틀러의 출현과 더불어 대중을 완전히 옭아매는 선동적 연설가의 상이 생겨나게 된다.[4] 이 글에서는 연설가로서의 히틀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연설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에토스와 파토스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 히틀러의 자기서술 방식

히틀러의 연설은 정확한 논증이 결여되어 있고 대중의 감정만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종종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논리성을 견지해볼 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는 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는 누구라도 자신의 그물 속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는 날 그 어떤 희망이라도 걸지 않을 계층은 없도록 대중을 선동해나갔던 것이다.

3) Vgl. Grieswelle(1972: 23).

4)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정치선전을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나치스는 연설을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무기로 간주하게 되었다. 나치의 대중 집회연설은 일종의 잘 기획되고 준비된 예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새로운 집단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마력에 빠져 들게 되어 연사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게 된다. 나치연설에 있어서 청중은 집단적 무의식의 실신상태에 빠져들게 되어 연사의 요구에 감성으로 부응하는 객체가 되고 만다. 바로 여기에 나치 수사학의 속성이 들어 있다.

수사학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대중을 열광시켰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히틀러의 연설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히틀러의 여러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 그의 연설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5] 그는 연설의 도입부에서 보통 위기상황을 언급한다. 그 안에는 안전욕구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사회적 정의 등이 현 상황에서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면 청중은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 차 불안한 감정 속으로 빠져든다.

이어서 비방의 단계와 흥분을 유발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나 유태인에 대해 증오심과 혐오감을 유발시키는데, 이들 감정은 급기야 분노를 넘어 격분으로 치닫게 된다. 청중은 마음이 불편해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청중으로 하여금 비방 받는 대상보다는 우월하다고 느끼고,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도록 한다.

연설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히틀러는 청중으로 하여금 비방의 대상에 대한 투쟁에 단호히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불사르도록 고조시킨다. 그리고 청중에게 번영되고 강력한 민족공동체의 비전을 표명한다. 아울러 히틀러는 자신이 제시한 목표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행위 속에 들어 있는 공격적 입장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동기로 정당화 시킨다. 청중은 앞에서 폭로된 파렴치한 음모에 대해 더욱 고조된 공격 욕을 갖게 되고, 이러한 공격 욕구를 갈망하는 데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나아가서 욕구 충족으로서의 편안한 해방감을 경험하게 된다.

연설 종결부에 이르면 히틀러는 보통 자신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관한 윤리적 근거를 만들어 낸다. 그런 다음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들과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들을 언급하고, 자신을 '윤리적 투사'로 부각시킨다. 청중은 히틀러가 묘사하고 있는 윤리적 투사, 즉 히틀러에 대하여 경외심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경외적인 존재가 청중의 권익과 그

5) Vgl. Ulonska(1997), 김종영(2000), 김종영(2002), 김종영(2003a), 김종영(2003b), 김종영(2004).

들의 관심사를 위해 투쟁하기 때문에 고마운 감정을 갖게 되고 급기야 맹목적 추종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통일된 청중은 연설가가 잔뜩 부풀리고 찬미한 연설속의 히틀러에 완전히 굴복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청중의 이러한 심리적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히틀러가 연설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그 묘사된 대상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선 고찰하기로 하자.

히틀러는 연설에서 자신을 묘사할 적에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부각시킨다.[6] 첫째, 개인적인 입장이 제기된다. 그는 보통 투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중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우리는 새로운 사상이 독일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점차적으로 전체독일민족을 완전히 옭아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소생의 이 깃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그 어느 누구하고도 용감하게 대항해서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의식과 자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갈 것입니다.
>
> Wir wollen kämpfen dafür, daß sich die neue Idee siegreich über ganz Deutschland erhebt und allmählich das ganz deutsche Volk in die Gewalt ihres Bannes zieht. Wir wollen mutig und entschlossen diese Fahne der Auferstehung unseres Volkes verteidigen gegen jeden, der sie glaubt niederreißen zu können. Wir wollen das Selbstgefühl und das Selbstbewußtsein in unserem Volk neu erwecken und dauernd zu steigern versuchen."[7]

둘째, 비방이 전개된다. 이를테면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파국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비난하면서 대중의 공포와 증오의 감정을 부추겨 나가고 있다.

> "혁명의 시절에 시작하여 억압과 노예의 시절까지, 조약과 긴급명령이 난무하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파탄이 연이었으며 불행이 겹겹이 쌓이는 것을 보았으며, 절망과 무기력, 희망 없음이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이 파국의 이정표였습니다. (…) 농부들의 상태는 오늘날 바닥까지 떨어

6) Vgl. Ulonska(1997: 10f).
7) Hitler, Rede v. 1.5.1933, in: Domarus(1988: 261).

졌고 생업은 파탄되었으며, 수백만이 저축한 푼돈을 잃어 버렸고, 다른 수백만은 실직자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변했고, 이전에 위대하였던 모든 것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면, 이 불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과 정당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Angefangen vom Tage der Revolution bis in die Epoche der Unterjochung und Versklavung, bis in die Zeit der Verträge und Notverordnungen sehen wird Fehlschlag auf Fehlschlag, Zusammenbruch auf Zusammenbruch, Elend über Elend über Elend, Verzagtheit, Lethargie, Hoffnungslosigkeit sind überall die Meilensteine dieser Katastrophen (...) Der Bauernstand liegt heute am Boden, das Gewerbe bricht zusammen, Millionen haben ihre Spargroschen verloren, Millionen andere sind arbeitslos. Alles, was früher war, hat sich gewendet, alles, was früher groß schien, ist gestürtzt worden. Nur etwas ist uns erhalten geblieben: Die Männer und die Parteien, die das Unglück verschuldet haben. Sie sind auch heute noch da."[8]

히틀러가 즐겨 비방하는 또 하나의 대상은 유태인이다.

"나는 기독교도와 인간으로서 주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고리대금업자, 독사의 무리와 살모사의 무리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마침내 기운을 내어 일어나시어, 채찍을 어떻게 쥐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그 대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유태인의 독에 맞서서 그분께서 행하신 엄청난 투쟁을,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2000년이 지난 오늘 깨달았습니다.

In grenzloser Liebe lese ich als Christ und Mensch die Stelle durch, die uns verkündet, wie der Herr sich endlich aufraffte und zur Peitsche griff, um die Wucherer, das Nattern und Ottergezücht hinauszutreiben aus dem Tempel! Seinen ungeheueren Kampf aber für diese Welt, gegen das jüdische Gift, den erkenne ich heute, nach zweitausend Jahren, in tiefster Ergriffenheit am gewaltigsten an der Tatsache, daß er dafür am Kreuz verbluten mußte."[9]

---

8) Hitler, Rede v. 7.3.1932, in: Fest(1973: 461).

종교적인 표현을 들먹이며 유태인에 대한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순한 어법에 보통의 단순한 청중들은 흥분하게 되고, 급기야 히틀러의 연설내용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의 '심오한 운동'으로까지 격상되는 분위기에 이르게 된다.

셋째,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훈계가 이어진다.[10]

> "우리가 이 길을 의연하게 열성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처럼 착실하고 충실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확신으로는, 또한 미래에도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
> Wenn wir diesen Weg weitergehen, anständig, fleißig und redlich, wenn wir so brav und treu unsere Pflicht erfüllen, dann wird, das ist meine Überzeugung, auch in der Zukunft der Herrgott uns immer wieder helfen."[11]

넷째, 행위가 기술된다. 히틀러는 행위를 기술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우리는 개인과 계급 상호간의 투쟁을, 신분과 종파와 정당 상호간의 투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토대 위에 독일민족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여기 본인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독일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 오직 민족으로서만 존속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정당 등의 집합으로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이 민족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

9) Hitler, Rede v. 12.4.1922, in: Jäckel, E. u. Kuhn, A.(1980: 623).

10) 이는 금지와 계율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정의나 관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를테면 "하느님이 말씀하시길, 이 땅위에 모두는 삶의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고, 이러한 권리를 옹호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Der Himmel sagt: auf dieser Erde sind alle gleich in ihrem Recht zum Leben und sie haben das Recht, dieses Recht zu verfechten.(Zit. n. Dyck, J. u.a. 1997: 11)"에서는 정의의 형태를 취하는 도덕적 훈계가 된다. 그리고 "삶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자는 이 삶에 대해 권리가 없는 자이다. Wer das Leben nicht selbst behauptet, der hat kein Recht zu diesem Leben.(Zit. n. Dyck, J. u.a. 1997: 11)"에서는 관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도덕적 훈계라고 할 수 있다.

11) Hitler, Rede v. 4.10.1937, in: Maas(1984: 66).

Wir haben dem Streit der einzelnen und der Klassen untereinander, dem Streit der Stände, der Konfessionen und der Parteien untereinander ein Ende gemacht! Wir haben über dem aufgerichtet das deutsche Volk, so wie Sie jetzt alle hier vor mir stehen. Wir haben diesem Volk die Überzeugung gegeben, daß es nur als Volk bestehen kann und nicht als eine Sammlung von Individuen oder Parteien usw."[12]

다섯째, 목표가 표명된다. 이 목표는 히틀러가 자기묘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된다.

"민족동지 여러분, 내가 1919년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로서 내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나는 틀림없이 커다란 환상을 갖고 위대한 미래의 희망을 세웠습니다. 그 희망은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계획하고 목표로 설정한 것은 우리 뒤에 놓여 있는 성과나 성공과 비교해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성취되어야했던 것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달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명용사, 이름 없는 병사에서 독일국민의 지도자로 가는 여정은 독일국민의 지도자에서 평화의 창조자로 가는 여정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나는 15년 동안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싸우고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신뢰의 덕으로 독일을 위해 싸우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평화와 노동과 복지와 문화의 이 위대한 제국을 위해 확신에 차서 투쟁하게 될 시간이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국을 원하고 이 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Meine Volksgenossen, als ich im Jahre 1919 meinen Weg begann als unbekannter namenloser Soldat, da habe ich die größte Zukunfthoffnung mit der größten Phantasie mir aufstellen müssen. Sie ist verwirklicht! Was ich heute mir als Plan setzte und als Ziel setzte, ist gar nichts im Vergleich zu dem, was an Leistung und am Erfolg schon hinter uns liegt. Das wird eher und sicherer erreicht werden als das, was bisher erreicht werden mußte. Denn der Weg vom namenlosen Unbekannten bis zum Führer der deutschen Nation war schwerer als der Weg vom Führer der deutschen Nation zum Gestalter des späteren Friedens sein wird! Einst habe ich anderthalb Jahrzehnte lang um euer

12) Hitler, Rede v. 4.10.1937, in: Maas(1984: 62).

> Vertrauen kämpfen und ringen müssen. Heute kann ich dank eurem Vertrauen für Deutschland kämpfen und ringen! Und einmal kommt dann wieder die Zeit, in der wir gemeinsam vertrauensvoll ringen werden für dieses große Reich des Friedens, der Arbeit, der Wohlfahrt, der Kultur, das wir aufrichten wollen und das wir aufrichten werden."[13]

지금까지 살펴 본 히틀러의 자기 묘사에 관한 구성요소들을 시간 축을 중심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자. 히틀러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면서 연설을 시작한다. 이 부분에서 그는 청중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며 자신에 관한 설명을 조정해 나간다. 이어서 특정 사안이나 사람을 비방하는 부정적 단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청중을 혼란시키고 그들 내부의 긴장을 강하게 자극한다. 이 두 단계가 지나가면 바로 연설 종결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주의 환기'를 비롯하여 히틀러 개인의 목표와 이 목표를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들이 언급된다.

히틀러가 자신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는 용맹성과 근면함과 애국심이다. 그는 독일을 위해 온갖 힘을 다 쏟는 지칠 줄 모르는 투사의 인상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여기에 정직함과 정의감이 더해지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자신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다. 히틀러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두드러지게 공격적인 어휘와 용맹성을 암시하는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갔으며,[14] 이들 요소들을 연설의 특정부분에 배치시킨다. 사회정의의 가치는 대개 연설 서두에 등장하고 애국심에 관련된 표현들은 연설 종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13) Hitler, Rede v. 10.12.1940, in: Domarus(1988: 1633 f.)

14) 제3제국의 기간 동안 몇몇 의미, 어휘영역에서의 어휘의 발달이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뜨인다. 이를테면 옛날 낱말, 권력과 폭력에 관련된 용어들, 군대용어, 인종신화적 낱말들, 감정적 표현과 이념적 표현들 그리고 종교와 생물학 및 의학의 영역에서 연유하는 은유적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

3. 히틀러 연설에서 나타난 에토스와 파토스

히틀러는 연설에서 특별히 대중의 감정의 흐름을 주목한다. 따라서 그의 연설은 대중의 감정을 부추기고 그들을 도취상태로 몰아간다.[15] 히틀러가 대중의 감정을 부추겨 나갈 때 그 안에는 에토스와 파토스의 구성 원칙이 들어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히틀러 연설에서 어떻게 함께 작용하며, 연설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합일되어 가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주안점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전수사학에서 이 둘을 둘러싼 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들고 있다.[16] 연설이 설득적인 내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말하는 연사의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설득은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울러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심리상태를 포함한 제반 여건을 연사가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발화 시에 청중의 감정상태를 연사가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표현된 발화가 논리적이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세 가지 설득방법은 곧 연설가의 세 가지 임무와 결부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17]

연사의 임무		
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	
통찰력의 발휘	청중을 완화·진정함	청중을 자극·고무함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논리성의 견지	윤리성에 호소	열정에 호소

이 가운데 여기에서는 에토스와 파토스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5) 히틀러의 수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틀러 연설에는 논리성이 결여되고 오직 대중의 감정을 격앙시키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한다. 히틀러 연설에서의 감정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Rauschning(1940: 198) 참조.

16) Vgl. Aristoteles(1980). 이는 말할이의 인격, 청중의 감정에 호소, 발화에 들어있는 논증성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7) Vgl. Göttert(1991: 22).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둘은 감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에토스는 연사의 연설내용이 청중에게 더 큰 관심을 끌고 신뢰를 얻기 위하여 연사가 지녀야 할 속성을 의미한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품에 해당되는데, 청중은 신뢰할만한 연사의 말에 더 잘 설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사는 뛰어난 인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파토스는 청중의 정서적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에토스 역시 파토스와 마찬가지로 감정적 범주에서 다루어볼 수 있는데, 파토스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한 부드러운 감정에 해당된다. 에토스는 일종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연사가 에토스를 이용하여 그와 청중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일을 이루어냈을 때,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연설내용이 수용될 전망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18]

연사는 청중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에토스를 이용한다. 에토스의 온화한 감동단계와 고무되고 자극된 격한 감정의 파토스는 상황에 따라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연사가 모든 상황에서 중용을 지켜 조용하고, 윤리적인 기본 음조만을 유지한다면 이는 청중의 감동을 자아내기 어렵다. 연사의 에토스는 청중을 격분시키고, 모욕을 느끼게 하고 몹시 화나게 만들거나 경탄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등의 감정이 고조된 연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에, 근거 있는 분노는 에토스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에토스의 설명을 통해서 청중에게서 파토스를 불러일으킬 경우, 에토스와 파토스는 융합할 수 있다.[19]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열의 영역에서 감정자극에 관한 구조관계를 언급하고 있다.[20] 설득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임의의 감정 X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한다. 첫째, 청자의 특정 심리상태가 거론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인가

---

18) 연사의 에토스에 들어 있는 '납득할 만함'은 연사가 제시할 대상이나 사태를 특징짓는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는 청중의 격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단초가 된다.

19) 이는 퀸틸리아누스의 다음의 언명에서도 확인된다. "이를테면 연설의 종결부에서 파토스가 초래한 흥분상태를 에토스가 다시금 진정시키곤 한다 (...) z.B. im Schlußteil der Rede; (...) die Erregung, die das Pathos verursacht hat, pflegt das Ethos wieder zu besänftigen."(Quintilianus 1988: VI 2, 12).

20) Vgl. Aristoteles(1980: 84).

를 하고자 하는 욕망상태와 그것을 내켜하지 않는 상태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특징된다. 둘째, 임의의 감정 X와 맞서 있는 특정 대상과, 셋째, 임의의 감정 X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히틀러의 초기 연설 가운데 하나인, 1922년 4월 12월 연설문의 종결부[21]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히틀러는 벌써 이 시기부터 '국민(Nation)', '노동(Arbeit)', '독일민족(deutsches Volk)', '피(Blut)', '인종(Rasse)', '순수성(Reinheit)', '청결(Sauberkeit)', '단정함(Anständigkeit)', '생활공간(Lebensraum)', '유대인(Jude)', '국제적 세계자본(internationalse Weltkapital)', '볼셰비즘(Bolschewismus)'과 같은 나치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어휘들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연설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아울러 히틀러는 모든 청중이 사실에 관한 특별한 지식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과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청중의 지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였던 것이다. 그는 청중에게 이해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들이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였다.

히틀러는 우선 청중에게 체제의 무능력과 현 상황의 가망 없음을 큰 목소리로 알린다. 이에 청중의 감정상태는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긴장이 고조된다. 청중은 이미 한 시간 반 동안 히틀러의 연설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인하여 경악하고 혐오감을 비롯한 각종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청중은 이러한 고조된 감정상태가 해소되길 열망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의 이상을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단계에 이르게 된 셈이다. 이어서 히틀러는 청중의 긴장상태를 서서히 해소해나가면서, 청중의 격한 감정이 누구를 향해야 할 것인가를 전한다.

---

21) 당시 유럽의 현안인 경제문제와 배상금 문제를 다룬 제노바회담이 계기가 되었던 이 연설에서 히틀러는 이미 자신의 정치적 신조의 기본노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정치초기에 히틀러가 추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 사태는 간단하게 처리해서 설명하고, 거리의 남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어법을 이용하여 청중의 마음을 얻어가는 히틀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연설은 두 시간 반 정도가 걸려 행해졌는데, 종결부에서만 약 한 시간 정도의 연설이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연설의 종결부에 등장하는 감정구성단계를 주목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전체 대중 속에서 현 체제와 노선을 달리하는 새로운 조류, 저항하는 조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체제를 이미 압박하고 있는 깨달음(역주: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말함)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 체제를 추적하고 장차 대중의 가슴에 파랑을 일으켜 격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중이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이 정부의 지도자는 종말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Aber in dieser ganzen Masse läuft bereits ein neuer Strom mit, der sich abzusondern beginnt, ein Strom, der Widerstand leistet. Es ist Erkenntnis, die dieses System bereits verfolgt, ihm nachjagt und die Massen dereinst aufpeitschen und aufreißen wird. Die Erkenntnis der Masse aber bedeutet das Ende dieser Führer."[22]

히틀러는 체제를 고발하고 청중의 격정을 불러일으켜 국가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할 토대를 만든 다음, 청중의 긴장을 해소해나가면서 국가사회주의의 이상을 전달해나간다. 그는 보다 나은 미래의 비전에 관한 계획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자신의 원대한 목표들과 위대한 행위들 그리고 도덕적인 훈계조의 경고와 더불어 그는 민족공동체의 유토피아를 마력으로 불러낸다. 연설을 통해 이제 막 생겨난 '독일/우리'-집단을 향하여 히틀러는 나치은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실함과 애국심에 관한 가치들을 열거해 나간다.

"우리는 일체의 편협한 대립을 넘어서 우리를 함께 묶어줄 수 있는 위대함을 원합니다. (...) 한 국가 안에는 오로지 유일한 최고의 시민권과 시민의 명예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야만 합니다. 바로 성실한 노동의 권리와 명예 말입니다. (...) 전체 민족을 위하여 무한적이고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민족공동체의 관용과 정직한 신뢰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 독일에서는 어떠한 계급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로지 하나의 민족만이 있을 뿐이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노동은 위대한 중개물일 것입니다. (...) 창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고귀한 민족입니다. 이는 바로 독일민족입니다.

Wir wollen über all die kleinlichen Gegensätze hinweg das Große, uns

22) Hitler, Rede v. 12.4.1922, in: Jäckel, E. u. Kuhn, A.(1980: 618).

gemeinsam Bindende herausgreifen; (...) Sie müssen lernen, daß es in einem Staat nur ein einziges höchstes Bürgerrecht und eine einzige höchste Bürgerehre gibt, das Recht und die Ehre der ehrlichen Arbeit; (...) in grenzenloser, alles umspannender Liebe zum ganzen Volk handeln; (...) überzeugt sein, von der Güte und der ehrlichen Redlichkeit der Volksgemeinschaft; (...) in Deutschland (...) da kann es keine Klassen geben, da gibt es nur ein Volk und weiter nichts; (...) Arbeit soll das große Bindeglied sein; (...) Die Schaffenden (...) sind das Edelvolk unseres Staates, das ist das deutsche Volk."[23]

위의 대목에 와서 마침내 히틀러는 자신이 앞서 만들어 놓은 청중의 긴장 상태를 해소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경고, 목표와 행위를 통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비장한 감동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셈이 된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찬란한 존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연설의 대미를 장식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청중의 감정상태[24]는 히틀러의 현란한 자기묘사를 부각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된다. 히틀러는 마지막 15분을 오로지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부분에서 자신을 예수와 비교하여 논지를 전개해나간다.

"2000년 전 한 남자가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 그 남자는 법정 앞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 그의 죄목은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지난 3년을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Vor 2000 Jahren wurde auch ein Mann denunziert; (...) der Mann wurde vor das Gericht geschleift, und damals hieß es auch: 'Er wiegelt das Volk auf.' (...) drei Jahre lang haben wir jetzt gearbeitet, und mit Stolz kann ich sagen, daß ich mein redlich Teil an dieser Arbeit mitgetragen habe."[25]

---

23) Hitler, Rede v. 12.4.1922, in: Jäckel, E. u. Kuhn, A.(1980: 619 f.).

24) 앞서 청중은 공포, 두려움, 증오, 질투, 분노를 느끼면서 히틀러의 연설을 따라간 후 목표, 행위, 도덕적 경고를 통한 긍정적인 구성단계에 이르러 감동을 느꼈다.

25) Hitler, Rede v. 12.4.1922, in: Jäckel, E. u. Kuhn, A.(1980: 624).

그렇다면 히틀러가 대관절 어떠한 사안에 대해 청중의 격정을 유발시키려고 했던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 당시 피의 대가를 치렀을 때, 나는 동시에 독일정신도 옹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는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어딘가에서 견실하지 않은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계몽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는 군인으로서의 나의 의무를 완수했지만 지금은 독일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제 레르헨펠트 백작의 입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훈장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훈장에는 프랑스의 오물과 플랑드르의 진흙과 나의 피가 붙어있습니다. 하늘도, 지옥도 악마도 백작도 내가 갖고 있는 훈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추방하려고 위협하는데, 나는 그에 대해 유일한 답변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행하려고 한 것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조국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마지막 독일인도 아니고 첫 번째 독일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바로 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독일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위대한 독일인 가운데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아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나 다른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는 마십시오. 나는 한번 참이라고 인정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 넘어서도 주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추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내게서 한 가지 것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일인이고 독일인으로서 행동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말입니다.

Ich habe damals, als es Blut kostet, auch mein Deutschtum vertreten. Ich habe damals nicht politisiert, und ich habe damals auch nicht geredet, ich habe mich damals auch nicht irgendwo herumgetrieben und das Volk aufgeklärt. Ich habe damals meine Pflicht getan als deutscher Soldat. Jetzt aber tue ich sie als deutscher Bürger! Man sagt mir nun durch den Mund des Grafen Lerfenfeld: Wir wollen Ihre Auszeichnungen nicht heruntersetzen! Das kann man auch gar nicht! Daran klebt der Schmutz von Frankreich und der Schlamm von Flandern und mein eigenes Blut dazu. Das kann mir kein Himmel, und kein Hölle, kein Teufel und auch kein Graf heruntersetzen! Und wenn man mir nun

droht, mich auszuweisen, dann habe ich darauf nur einzige Antwort zu geben: Was man mit mir tut, soll man tun. Ich bin nicht der letzte und bin auch nicht der erste Deutsche, der Boden seines Vaterlandes - denn das ist dieser Boden für mich - verlassen mußte. Es gibt kaum einen, selbst unserer größten Deutschen, der nicht zu einer Zeit aus Deutschland flüchten mußte. Gewiß, der ist schmerzvoll, aber glauben Sie nur ja nicht, damit mich oder irgendetwas anderes ändern zu können. Was ich einmal als wahr erkannt habe, das vertrete ich nicht nur hier, sondern auch über dieser Grenze. Man mag mich ausweilen, wohin man will. Eines wird man niemals rauben können: den Stolz, daß ich trotz allem ein Deutscher bin und als Deutscher handeln werde."[26]

위의 연설부분에서는 히틀러가 일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별히 눈에 띈다. 그는 자신을 더욱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현저하게 투쟁적으로 형상화된 모습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히틀러는 도덕적인 경고와 자기고유의 인물묘사를 결합시키고 있으며, 은연중에 자신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묘사의 토대위에서 그는 강인함과 열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이고 투쟁적인 탁월함을 묘사하면서 청중의 존경심을 유도해내고 있는 것이다.[27]

히틀러는 에토스와 파토스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 말하자면 자신의 에토스를 통해서, 그것이 청중에게 파토스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 고전수사학에서 에토스와 파토스의 효과적인 결합은 매우 어려워서 늘 추구해야할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 두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말은 연설이 성공하였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28] 히틀러는 에토스와 파토스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냄으로써 연설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던 것이다.[29]

---

26) Hitler, Rede v. 12.4.1922, in: Jäckel, E. u. Kuhn, A.(1980: 625).

27) Vgl. Heller(1946: 60). 이러한 파토스는 청중으로 하여금 탁월함의 감정을 넘어서 존경의 감정이 일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28) Vgl. Dockhorn(1968: 67).

29)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계산된 뛰어난 연설덕택에 히틀러는 에토스와 파토스의 합

4. 맺는 말

히틀러는 고전 수사학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청중에게 감정을 이입시키고 있다.[30] 그는 '하고 싶지 않음'과 '하고 싶음'의 긴장관계를 유발하면서 청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우선 그는 청중의 감정을 붙들어 놓은 다음, 격정의 대상을 자세히 규정하며, 나아가서 격정의 근거들을 조목조목 기술한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인간의 여러 감정들을 계속해서 건드려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드디어 청중은 그의 능란한 연설기술을 통해 감동되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히틀러가 자신을 묘사하는 과정을 분석해보면, 그가 에토스와 파토스를 이용하여 어떻게 청중들과의 교감을 이끌어 가는지를 알 수 있다. 히틀러 수사학을 고찰해보면 그가 고전수사학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연설에 적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31] 그러나 그의 수사학에는 정직과 양심과 같은 사람 냄새가 빠져 있다. 그는 에토스로 무장된 연설 속의 자신을 청중이 신뢰하도록 온갖 포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선동된 청중은 급기야 격정의 파토스를 통하여 히틀러에게 열광하게 되었던 것이다.[32]

말 때문에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분열을 잠재우고 일치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카리스마 있는 정치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그러한 지도자의 출현을 갈망하게 된다. 카리스마 있는 정치지도자로 사람들은 쉽게 히틀러를 떠올린다. 그의 카리스마는 전기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는 동물적 후각으로 시대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 나갔다. 그는 천재적 연설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도약하였고 초반부의 화려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30) 히틀러의 탁월한 감정전이의 능력은 인지와 토포스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31) 이를테면 히틀러는 연설 도입부에서 에토스를 이용하여 '신뢰-친절'이라고 하는 친숙함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연설을 전개해 나간다.

32) 히틀러는 단지 외관상으로만 치장된 그럴 듯한 진리를 근거 삼아, 명백한 거짓말을 유포함으로써 에토스를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행하는 거짓말의 대부분은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 성공을 거쳤으나, 종국에 가서는 인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으며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야 겨우 그를 제거해낼 수 있었다. 그의 삶의 여정과 그만의 독특한 수사학을 제대로 읽어 내기만 한다면, 이는 하나의 정치적 교과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영 (2000): 히틀러의 1937년 10월 4일 연설문 분석, 텍스트언어학 제8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S. 299-231.

김종영 (2002): 히틀러의 1933년 5월 1일 연설문 분석, 독어교육 제25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S. 247-267.

김종영 (2003a): 파시즘 언어, 서울: 한국문화사.

김종영 (2003b): 히틀러의 1940년 12월 10일 연설문 분석, 독어학 제7집, 한국독어학회, S. 193-213.

김종영 (2004): 나치 수사학, 수사학 창간호, 한국수사학회, S. 73-103.

박성창 (2000): 수사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양태종 (1999): 수사학 이야기,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Aristotels (1980): Rhetorik, übers. v. Franz G. Sieveke, München.

Beck, H.R. (2001): Politische Rede als Interaktionsgefüge: Der Fall Hitler, Tübingen.

Berning, C. (1961): Die Sprache des Nationalsozialismus, in, Zeitschrift für deutsche Wortforschung 17. S. 171-182.

Berning, C. (1962): Die Sprache des Nationalsozialismus, in, Zeitschrift für deutsche Wortforschung 18. S. 108-118; 160-172.

Berning, C. (1963): Die Sprache des Nationalsozialismus, in, Zeitschrift für deutsche Wortforschung 19. S. 92-112.

Berning, C. (1964): Vom Abstammungsnachweis zum Zuchtwart. Vokabular des Nationalsozialismus. Berlin.

Bork, S. (1970): Mißbrauch der Sprache. Tendenzen nationalsozialistischer Sprachregelung. Bern.

Diesener, G./Gries, R. (Hg.) (1996): Propaganda in Deutschland. Zur Geschichte der politischen Massenbeeinflussung im 20. Jahrhundert. Darmstadt.

Domarus, M. (1988): Hitler. Reden und Proklamationen 1932-1945. Kommentiert von einem deutschen Zeitgenossen. Bd. 1-4. Leonberg.

Dyck, J./Jens, W./Ueding, G. (Hg.) (1997): Rhetorik. Ein internationales Jahrbuch, Bd. 16, Rhetorik im Nationalsozialismus, Tübingen.

Fest, J. C. (1973): Hitler. Eine Biographie. Frankfurt am Main/ Berlin.(안인희 역: 히틀러 평전, 서울 1997).

Göttert, K-H. (1991): Einfuhrung in die Rhetorik. Grundbegriffe- Geschichte -Rezeption. München.

Hitler, A. (1943): Mein Kampf. 815-820. Aufl. München.

Jäckel, E. u. Kuhn, A. (Hg.), Hitler. Sämtliche Aufzeichnungen 1905-1924, Stuttgart 1980.

Klöss, E. (Hg.) (1967): Reden des Führers. Politik und Propaganda Adolf Hitlers 1922-1945. München.

Quintilianus, M.F. (1988): Ausbildung des Redners, übers. v. Helmut Rahn. 2 Bd., 2.Aufl., Darmstadt.

Sluzalek, R. (1987): Die Funktion der Rede im Faschismus. Mit einem Vorwort von Gerhard Kraiker. Oldenburg.

Ueding, G. (1996): Klassische Rhetorik, München(박성철 역: 고전수사학, 서울 2003).

Ulonska, U. (1997): Ethos und Pathos in Hitlers Rhetorik zwischen 1920 und 1933, in: Dyck, J./Jens, W./Ueding, G.(Hg.)(1997): Rhetorik. Ein internationales Jahrbuch, Bd. 16, Rhetorik im Nationalsozialismus, Tübingen.

Zusammenfassung

Zu Ethos und Pathos in Hitlers Reden

Kim, Tschong-Young(Mokpo National Univ.)

In dieser Arbeit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ie Charakteristik der Rhetorik von Hitler zu analysieren. Im Abschnitt zwei wird die allgemeine Charakteristik der Hitlers Reden beschrieben. Die Reden von Hitler sind Elemente eines verzweigten, flexiblen und

inhaltlich nur schwer bestimmten Komplexes von Manipulations-und Machttechniken, die trotz seiner Tendenz zur Zentralisierung nur schwer als System zu fassen sind. Dies macht die Schwierigkeit jeder analytischen Erfassung aus. Seine Rede vermag im Bezug auf Logik und Argumentation wenig zu überzeugen, aber er wirkte. In dieser Analyse wird die Rede von Hitler folgende Systematisierung möglich:

1) Am Anfang weist Hitler auf die allgemeine Not hin.
2) Danach diffamiert er seine Gegner und provoziert starke Emotionen bei seinen Zuhörern.
3) Zum Schluß löst Hitler bei den Deutschen eine starke Kampfbereitschaft aus und entwickelt vor seinen Zuhörern seine Vision eines blühenden, starken Deutschlands.
4) Abschließend erklärt Hitler seine persönlichen ethischen Vorstellungen und seine sich daraus ergebenden Handlungen. Er liegt großen Wert darauf, die Ethik seine Handlungen zu begründen.

Danach wird die Selbstdarstellung von Hitler beschrieben. Fünf Realisierungsformen sind dafür relevant: a) persönliche Erzählungen, b) Diffamierungen, c) sittlich wertvolle Ermahnungen, d) Taten und e) Ziele.

Im Abschnitt drei wird die Rhetorik von Hitler gemacht. Hier handelt es sich um Ethos und Pathos. Hitler versuchte, die durch die Aktivierung zwischen ihm und Publikum vorhanden, unbewußten psychischen Potentiale, die durch den Akt der Rede aktiviert werden, zu realisieren. Er hat jeder Sammlung nur gesagt, was sie hören wollte, den wahren Sachverhalt nur auf höchst vordergründige Weise.

[검색어] 에토스, 파토스, 수사학, 연설, 히틀러
Ethos, Pathos, Rhetorik, Rede, Hitler

김종영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목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yesora@hotmail.com

논문 접수일: 2004. 10. 30
논문 심사일: 2004. 11. 23